

목포시-신안군 통합 작업 '시동'

'통합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민간 주도 논의 속 공감대 필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 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민간 주도로 통합을 실현할 시민사회단체인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배광연, 이하 추진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추진위원 25명을 비롯해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사·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 발족식을 가졌다.

김 시장은 발족식에서 "시·군통합의 최대 결림들은 현 단계장의 욕심"이라면서 "시·군 통합을 위해 통합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임기 동안에 통합을 하라는 말을 해왔다"면서 "통합시장 불출마는 진정성을 갖고 통합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로,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목포와 신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면서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는다면 민간 주도의 통합 논의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목포시에서는 지난해 7월 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정 '통합추진민간준비모임'을 결성한 뒤 양 시·군 단체장 면담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해안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안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연구자를 위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과 민집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완도군은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투자유치 설명회와 개별 기업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일 오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추진위원 25명을 비롯해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창수 시의회의장, 사·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 발족식이 열렸다. <목포시 제공>

답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해안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안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연구자를 위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과 민집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완도군은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투자유치 설명회와 개별 기업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이 되도록 서남권 민간단체들과 교류협력해 주민 주도의 통합 기틀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앞으로 통합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행정통합 핵심과제 발굴, 통합 주요 현안 과제·쟁점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 해양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유치 나선다

용역 중간 보고회 가져

완도군이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나선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일 '해양바이오 생태계 조성 사업'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신지면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해양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국내·외 우수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사례를 적극 검토해 최적의 해양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23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해 해조류 활성 소재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어서부터 제품 생산까지 해양바이오산업화의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국내·외 우수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사례를 적극 검토해 최적의 해양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23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해 해조류 활성 소재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어서부터 제품 생산까지 해양바이오산업화의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해경, 무인 항공기로 '청정 섬' 만들기 분주

목포해경이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섬 섬 만들기 위해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광범위한 항공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해 도입해 운용 중인 무인 항공기(길이 1.44m, 폭 1.80m, 시속 50~80km, 최대 비행시간 90분)를 활용해 지난 2일 해남군 화원반도 일대를 항공 순찰해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을 파악했다.

또 무인 항공기를 통해 촬영된 쓰레기 분포 및 유입 경로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양 쓰레기 정보지도'를 제작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할

지자체와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까지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인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안 해역 해양오염 감시 체계 확립과 신속한 정화 활동 실시로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달 24일 해양경찰의 해상 교통안전 관리, 해상 치안유지, 해양오염 방제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드론과 경량 항공기의 조종 기술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의 활성화를 위해 초당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영암군 경제 활력 '청신호' 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연장

국비 등 투입 소상공인 용자·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영암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연장으로 지역경제 활력의 '청신호'를 켜다.

영암군은 지난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1회 연장으로 지난달 28일자로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영암군은 앞서 최초 지정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다방면으로 지역산업의 위기 상황 극복에 노력해 왔다.

그동안 영암군의 중추적 기반산업인 조선산업은 2018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1회 연장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황기(2014년) 대비 지난해 조선업 경기는 고용인원 1만8000명(62%), 매출액 5조9000억원(8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 또한 25% 가감소해 여전히 조선업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다.

최근 조선산업이 회복 추세로 돌아섰지만 완전

한 회복은 이르다는 판단하에 영암군은 전남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연장을 확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영암군은 이번 특별지역 추가 연장을 통해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10억원 내외, 소상공인 7000만원) 용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최대 5000만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내·외 경영·기술·회계 관련 전문 지원 등 정방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대와 대외무역 증가로 조선산업의 회복이 기대된다"며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 등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위기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다동이 가족 제주여행' 보내 드립니다

영광군 30일까지 대상자 모집

영광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족 여행이 쉽지 않은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다동이 가족 행복여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다동이 가족 행복여행은 6가족을 선정해 8월부터 12월 중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가족 화합 프로그램 참여, 지역문화 탐방, 가족체험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족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신청서를 받아 인구일자리정책실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팩스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총 자녀수, 세대 구성일 기준 관내 거주기간, 신청 월의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고배점자 순으로 정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6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 금산지구 배수개선 28억 국비 추가 확보

중앙배수로 설치 주민 숙원 해결

무안군은 해제면 금산지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중앙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28억 7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배수시설 및 영농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농경지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향상과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해 침수피해 방지와

타작물 재배기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앞서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사업비 130억9400만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앙 배수로와 추가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 사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국비 추가확보로 해제면 용학리와 천장리 일대 경작민들의 오랜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배수장 3개소를 정비하고, 배수로 5.54km를 신설·확장할 예정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공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계좌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지신로위원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